



백삼위 한인성당

2701 W.237th St. Torrance, CA 90505
www.103skcc.org 103skccusa@gmail.com

담임신부 626-215-7224
전교수녀 213-804-9151
평협회장 310-408-1443
연령회장 310-749-8942
사무실 310-326-4350

주일미사	주일전날저녁	오후 7시	평일미사	월,화	미사없음
	아침미사	오전 7시 30분		수	오후 7시 30분
	가족미사	오전 9시 30분		목,금	오전 9시 30분
	교중미사	오전 11시	신심미사	첫 토요일	오전 9시 30분
고해성사	평일 · 토요일 미사 30분 전				

사무실 업무시간	
월,화,토	휴무
수,목,금	8:30am - 4:30pm
주일	8:30am - 1:30pm

(가해)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

입당 : 239 파견 : 44

화답송 Responsorial Psalm

◎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.

(시편 67, 2-3, 5, 6, 8)

-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. 당신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.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,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. ◎
-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,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. ◎
- 하느님,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.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.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.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. ◎

◎ May God bless us in his mercy.

(Psalm 67:2-3, 5, 6, 8)

- May God have pity on us and bless us; may he let his face shine upon us. So may your way be known upon earth; among all nations, your salvation. ◎
- May the nations be glad and exult because you rule the peoples in equity; the nations on the earth you guide. ◎
- May the peoples praise you, O God;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! May God bless us, and may all the ends of the earth fear him! ◎

103위 순교 성인

16. 성녀 이 바르바라

Yi Barbara
(1825 - 1839)



이 바르바라는 독실한 구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서울 청파동에서 이영희, 이정희 두 이모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다.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4월, 15세의 어린 나이로 체포되어 포청에서 신문을 받은 뒤 형조로 이송되었다. 형조에서 어린 것이 요물이라 하여 매우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하였으나 끝까지 배교하지 않자 다시 포청으로 송환되었다.

포청에서 이 바르바라는 전보다 훨씬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당하였으나 꺾이지 않고 참으며 함께 갇혀 있는 어린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5월 27일 기갈과 열병 그리고 고문의 여독으로 옥사함으로써 15세의 어린 나이로 순교하였다.